

2018년도

참담치(토종 홍합) 치패 방류 완료보고



2018 참담치(토종 홍합) 치패 방류 완료 보고

이상기후 현상 및 자원 남획 등에 의하여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우리 연구소에서 자체 생산한 우량 치패를 방류함으로써 자원량 증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

I 방류 개요

○ 방류 일시 및 지역

- 가. 1차 방류(2018.10.12.) : 옹진군 영흥면 내리 농어바위해역, 10만미
- 나. 2차 방류(2018.10.17.) : 옹진군 자월면 승봉 목개지선해역, 50만미

○ 방류 품종 : 참담치(토종 홍합) 치패

○ 종패 크기 : 각고 1cm 내외

○ 방류 방법 : 차량 및 어선으로 방류지역까지 이동하여 방류

II 참석자

○ 연구소 : 소장, 담당 직원

○ 면사무소 : 자월면 수산담당 김수완

○ 어촌계 : 영암어촌계장 및 계원, 승봉어촌계장 및 계원

III

방류 수량 검수

○ 표본 측정 결과

- 평균 각고 1cm 내외

○ 방류 수량

- 총수량 600,000마리

- 수량 검수

| 계량 회수(회) | 총무게(g) | 개체당 평균 무게(g) | 방류수량(미) |
|----------|--------|--------------|---------|
| 6 | 96,000 | 0.16 | 600,000 |

※ 방류 예정 30일전에 모판에 부착 작업 완료

IV

방류 해역도



V

방류 사진

※ 영흥면 내리 농어바위 해역



수조내 참담치 치패



모판에 부착시킨 참담치 치패



방류지역으로 이동



바닥에 고정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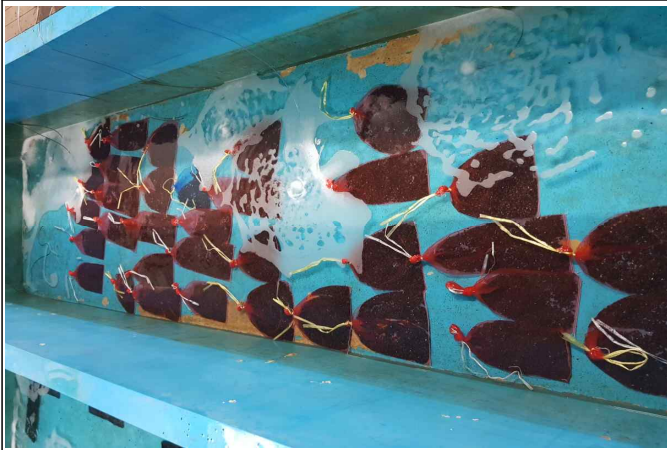


바위틈에 돌로 고정(1)



바위틈에 돌로 고정(2)

※ 자월면 승봉 목개지선해역



방류 예정 참담치 치패



방류지역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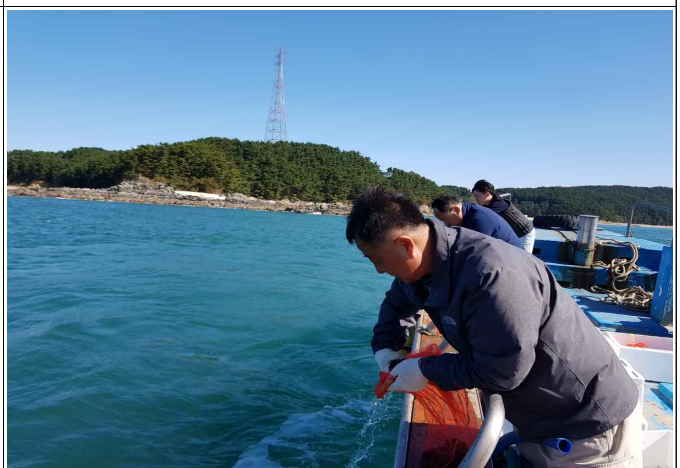
방류지역으로 이동준비



방류지역 위치



참담치 치패 방류 작업(1)



참담치 치패 방류 작업(2)

HOME > 사회 > 인천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어린 참돔치 50만 마리 방류

✎ 박범준 | 승인 2018.10.17 | 댓글 0



프린트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자원 남획으로 점점 사라지는 토종 홍합 '참돔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해 17일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해역에 어린 참돔치 50만 마리를 방류했다.

참돔치는 홍합과에 속하는 패류로서 조간대에서 수심 20m 사이 암초에 많이 서식한다.

신정만 소장은 "참돔치 인공 종자를 연중 생산하기 위해 어미 관리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도 참돔치 자원량 회복을 위한 방류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

이 시각 주요뉴스 수원 서호저수지에서 30대 남성 시신 발견... 경할 수사 착수

경인일보를 내외국 뉴스스탠드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 > 인천 > 경제

토종 홍합 '참담치' 서식지 복원... 승봉도해역 치패 50만마리 방류

윤설마 기자 | 발행일 2018.10.18 제4면

글자크기 + -

인천시 수산자원팀, 지속 관리
양식기술 개발 어린 소득 증대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토종 홍합 '참담치'를 복원하기 위해 어린 참담치 50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종 홍합인 '참담치'란 최근 자원 남획으로 점점 사라지고 있는 패류다. 한국 연안과 중국 황해 연안, 일본 북태평양 연안에만 서식하며 수심 20m 사이의 암초에 많이 서식한다.

껍질은 오각형에 가깝고 매우 두껍고 단단하며, 표면은 흑색으로 광택이 난다. 크기는 12~17cm 내외다. 양식이 되지 않아 예부터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제사상에만 올리는 수산물로 여겨지고 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이날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어린 참담치 50만 마리를 울진군 자월면 승봉도 해역에 방류했다. 방류한 어린 참담치는 실내에서 사육한 1cm 내외의 치패로 앞으로 승봉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방류는 갈수록 사라져 가는 참담치 종 복원과 양식기술 개발을 이루기 위해 진행됐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감소하고 있는 참담치 서식지 확대 조성을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계획이다.

신정만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참담치 인공종자를 연중 생산하기 위해 어미 관리에 들어갔으며 오늘 12월에 산란을 유도, 유생을 사육하여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담치에는 타우린과 핵산 등이 풍부해 간의 독소를 풀어주어 피로 해소는 물론, 숙취 해소를 돕고 비타민 B12, B2, C, E, 엽산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윤설마기자 say@kyeongin.com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보기](#)

TODAY HOT

피해기자

"더 이스트라이드" 이석필 "4년간 폭행 당해"

KT, 와이파이 끊김 방지기술 개발... 상용화
'빛 안 깔고 이만' 2천345명, 못받은 돈 4천억
주요공이 대신 같은 버팀목대출 634억원 달해
서울 일반 평균시급 8484원... 최고는 강남구
충북권 당점급 1조1천억원까지 솟아, 역대2위
쟁취, 2천134억원 입류재산 22~24일 공개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보기](#)

개문해

현재위치 : 홈 > 전국 > 경기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토종 홍합 '참담치' 방류

참담치 자원량 회복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 실시 계획

가- 가+

입력 2018-10-17 09:31 수정 2018-10-17 09:31

기사 보기 | NEWS Link | Facebook | Tweet | Google+ | BAND | Print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신경만)는 17일 중진면 자월면 송봉도 해역에 자원 남획으로 절멸 사려져가고 있는 토종 홍합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어린 참담치 50만 개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방류한 어린 참담치는 무렵 어미로부터 유생을 받아 실내에서 부유 유생기를 거쳐서 사육한 1cm 내외의 치어이다.

참담치는 울릉도에 속하는 패류로서 중간대에서 수심 20m사이의 암초에 많이 서식한다. 껍질은 오각형에 가깝고 매우 두껍고 단단하며, 표면은 울퉁불퉁한 광택이 나며, 크기는 12~17cm내외로 전주 참담치에 비해 두배 이상 큰 것이 특징이다.

참담치가 부는 수온 계절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알칼리분이 가득 들어 있어서 겨울철에 즐겨 먹는 기호 식품으로 알려져서 달린 것을 담채(淡菜)라 한다.

참담치에는 타우린과 락산 등이 풍부해 간의 기능을 도와주어 피로 해소는 물론, 숙취 해소를 돕고 비타민 B12, B2, C, E, 엽산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담치는 한국 연안과 중국 황해 연안, 일본 북태평양 연안에만 서식하고, 양식이 되지 않아 예부터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제사상에만 올리는 귀한 수산물이었다.

실시간뉴스

- 4시간전** [긴급] 일명 '황천연선' 노인과 혼동 위험... [4시간전]
- 4시간전** 기즈카에 경찰에서 구덩기 수습하라... 식약처... [4시간전]
- 4시간전** 세종 어린이 안전체험축제 '참파쿠' [4시간전]
- 4시간전** 세종누리학교 학부모회 '화사선형학' 모토 규... [4시간전]
- 4시간전** 세종문화재단, 27일 조치원읍에서 찾아가는... [4시간전]

전체기사보기

포토뉴스



Mooroo

강사이 본격 리얼액션

전설의 가문

무료연화 바코가기 >

추천기사

- 교육당국 유치원 감사결과 오는 25일 실명공개...상시감사체계 가
- KTX세종역 출정상상 위한 대전 사·충남도 역할론 급무상
- 20일은 법정기념일 '문화의 날'...대전은 무관심



HOME > 전국 > 인천-경기

인천시, 사라져 가는 토종 홍합 '참담치' 복원을 위해 어린 새끼조개 방류

김양훈 기자 | 2018.10.17 10:31 | 댓글 0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신정만)는 자원 남획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 홍합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어린 참담치 50만 마리를 인천 용진군 자월면 송봉도 해역에 방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방류한 어린 참담치는 우렁 어머니로부터 유생을 받아 실내에서 부유 유생기를 거쳐서 사육한 1cm 내외의 치패로 앞으로 송봉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참담치는 홍합과에 속하는 패류로서 조간대에서 수심 20m사이의 암초에 많이 서식한다. 껍질은 오각형에 가깝고 매우 두껍고 단단하며, 표면은 흑색으로 광택이 나며, 크기는 12~17cm내외로 진주담치에 비해 두배 이상 큰 것이 특징이다.

찬바람이 부는 추운 계절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영양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서 겨울철에 즐겨 먹는 기호 식품으로 살아서 말린 것을 담채(淡菜)라 한다.

참담치에는 타우린과 핵산 등이 풍부해 간의 독소를 풀어주어 피로 해소는 물론, 숙취 해소를 돕고 비타민 B12, B2, C, E, 엽산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 매우 좋다

참담치는 한국 연안과 중국 황해 연안, 일본 북태평양 연안에만 서식하고, 양식이 되지 않아서 예부터 귀한 손님을 대접하거나 제사상에만 올리는 귀한 수산물이었다

이번 방류는 갈수록 사라져 가는 참담치 종 복원과 양식기술 개발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감소하고 있는 참담치 서식지 확대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

신정만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참담치 인공증자를 연중 생산하기 위해 어미 관리에 들어갔으며 오늘 12월에 산란을 유도, 유생을 사육하여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양훈 기자 dpyhgl111@hanmail.net

* 김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베스트 클릭 뉴스

- 대우조선, 연내 임단협 타결 불투명...해상 수
- 최태원 뉴SK 구상에 '최신원화' 배치나...CEO
- '우리 문제부터 해결하라'...문정신도시 주민
- 이재영 와해 메시지에도 '해결공 김씨' 풀리지
- (2018국립) 도로공사, 요금 수입원 정규직 전
- 산업은행, 왜 이리나...이자 장사, M&A실력
- 산업은행, 순익 넘는 소송 증담금...패스 못비
- 연세대, 캠퍼스 통합 등 각종 학내 문제로 갈
- HUG, 서대구 산단 도시재생사업 주목도서기
- 부동산시장에도 '가치투자' 부상

에드버토리얼

- 역직원, 일자리 창출 위해...채용 규모 확대 조직 개편
이화선 기자
- KCC, 중일화 적가와 '아트 콜라보레이션' 사회공헌활동
PR 기자
- 금호건설, '광주 금호 리젠시아' 10월 분양
PR 기자
- 우미건설,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10월 분양
PR 기자

[Market Capital] 자유자율+신뢰+주력
현대캐피탈 다이렉트 증권차분 **나의 중고차 금리는 몇 %?** [신용등급 영향 없는 한도조회하기 >](#)

인천시, 사라져 가는 토종 홍합 '참담치' 복원을 위해 어린 새끼조개 방류

박승배 기자 · 입력 | 2018-10-17 09:39 · 수정 | 2018-10-17 09:39



17일 인천 용진군 자월면 송봉도 해역에 방류.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신경만)는 자원 남획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 홍합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어린 참담치 50만 마리를 17일 인천 용진군 자월면 송봉도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방류한 어린 참담치는 우량 어미로부터 유생을 받아 실내에서 부유 유생기를 거쳐서 사육한 1cm 내외의 치패로 앞으로 송봉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참담치는 홍합과에 속하는 패류로서 조간대에서 수심 20m사이의 암초에 많이 서식한다. 껍질은 모각형에 가깝고 매우 두껍고 단단하며, 표면은 흑색으로 광택이 나며, 크기는 12~17cm내외로 진주알치에 비해 두배 이상 큰 것이 특징이다.



현장계사산-인천시

AJU ONLY

[산기개] 연동형비례제 시뮬레이션...정의 '급중'

[말기의물가] 권오현은 문정부의 기업정책에 이

[로보] '자영업자들의 학원' 프랜차이즈 박람회 기

[미디어] 한만도영학미사 교황청 국무총장, 김택 현

가장 빠른 서비스로 더 즐거운 여행
KRW 96,400
cebu pacific

NOW CHINA

中弘股份
000979.SZ

[중시] '100원짜리' 동진주 회물시대 열리나

가장 빠른 서비스로 더 즐거운 여행
KRW 96,400

HOME > 전국 > 경기/인천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 어린 참담치 50만 마리 자월면 승봉도 해역에 방류

김행만 기자 | 승인 20181017 13:22 | 댓글 0



▲ 인천 동진군 자월면 승봉도 해역에 방류된 참담치 (사진제공=인천시)

[인천=내외뉴스통신] 김행만 기자 =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자원 남획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동종 종양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어린 참담치 50만 마리를 10월 17일 인천 동진군 자월면 승봉도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방류된 어린 참담치는 무항암부터 유생울 받아 실내에서 부유 유생기를 거쳐서 사육한 1cm 내외의 치태로 앞으로 승봉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참담치는 종양과에 속하는 패류로서 조간대에서 수심 20m사이의 암초에 많이 서식한다. 껍질은 오각형에 가깝고 매우 두껍고 단단하며, 표면은 흑색으로 광택이 나며, 크기는 12~17cm 내외로 진주담치에 비해 두배 이상 큰 것이 특징이다.

참담치가 부는 주된 계절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영양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서 겨울철에 즐기려는 기호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참담치에는 타우린과 핵산 등이 풍부해 간의 독소를 풀어주어 피로 해소는 물론, 숙취 해소와 흡수 비타민 B12, B2, C, E, 엽산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 매우 좋다.

사무실·상가 구할 때 **네오 네오**



인기기사

1. 영유아 사육비, 납대없이 돌보던 하루? 마달...
2. 김무환과 '관종없는 비만' 추정 -영상까지...
3. "숙이겠다" 했는데 죽에 권유민? 김세구 PC...
4. 백승희 국정감사 "일자리 늘려 사회공헌하...
5. 김세구 PC반 살인, 호텔 공무원 스무살 말마...
6. "잡지지만" 70+확증" 쓴다 특이논란, 세백...
7. 동여여대 앞소년, 날가보고 딸은 불처 죄박...
8. 김부선 음성파열 -일회 공전 공개 "제가 딸...
9. 김무영과 '불 뿌리고 고상' -"조가 생각에...
10. 임진천, 죽을 위기로 돌아와 연금한 '일본마...





인천시, 사라져 가는 토종 홍합 '참담치' 복원을 위해 어린 새끼조개 방류

머니투데이 다리더 최정연 기자 | 입력: 2018.10.17 19:45



인천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신정만)는 자원 남획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 홍합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어린 참담치 50만 마리를 17일 인천 용진군 자월면 송봉도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방류한 어린 참담치는 우량 어미로부터 유생을 받아 실내에서 부유 유생기를 거쳐서 사육한 1cm 내외의 지패 크기로 송봉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참담치는 홍합과에 속하는 패류로서 표간대에서 수심 20m사이의 암초에 많이 서식한다. 껍질은 보라색에 가깝고 매우 두껍고 단단하며, 표면은 붉색으로 광택이 나며, 크기는 12~17cm내외로 진주담치에 비해 두배 이상 큰 것이 특징이다.

한바람이 부는 푸른 계절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영양성분이 가득 들어 있어서 겨울철에 즐겨 먹는 기호 식품으로 삼아서 팔린 것을 담채(淡齋)라 한다.

참담치에는 타우린과 핵산 등이 풍부해 간의 독소를 풀어주어 피로 해소는 물론, 숙취 해소를 돕고 비타민 B12, B2, C, E, 엽산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 매우 좋다

U+인생모바일

데이터X통화 무제한!

영화/게임/음악의 즐거움도 무제한

10월 31일까지, 연장!

49,990원 → **16,880원**

개별요금

참담치는 한국 연안과 중국 황해 연안, 일본 북태평양 연안에만 서식하고, 양식이 되지 않아서 예부터 귀한 수산물로 대접하거나 제사상에만 올리는 귀한 수산물이었다

이번 방류는 갈수록 사라져 가는 참담치 종 복원과 양식기술 개발을 이루기 위한 일환으로 감소하고 있는 참담치 서식지 확대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고 있다.

신정만 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참담치 인공증자를 연방 생산하기 위해 어미 관리에 들어갔으며 오는 12월에 산란을 유도, 유생을 사육하여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

1. 조정석♥거미, 주변인이 본 '부부는?' '서로 채워주고 잘 맞아'
2. 양지훈, 루머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3. 조정석, 왜 아닌 피라시-두번 상처주는 악물
4. 조정석♥거미, '서로에게 큰 힘'-친구에서 동반자로
5. '2018 10월 무의고사', 역대급 난이도..불수능 재연될까?



최신기사



인천환경공단, '세계 표준의 날 기원'장면



사회 > 지역

+ -

인천시, 토종 홍합 '참담치' 복원 위해 어린 새끼조개 방류

최필수 기자 | 2019-10-17 13:48:26



▲ 포항 공화 '참담치' 복원 위해 어린 새끼조개 방류(시연/김철서)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소장 신정만)는 자천 남획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토종 홍합 '참담치' 자원량 회복을 위해 어린 참담치 60만 마리를 17일 인천 송진군 자갈천 습릉도 해역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방류한 어린 참담치는 두랑 어미로부터 유생을 받아 실내에서 부유 유생기를 거쳐서 사육한 1cm 내외의 치제트 알트로 습릉도 어업인의 스크럼어에 기여할 것이다.

참담치는 홍합과에 속하는 퍼류로서 조간대에서 수심 20m사이의 암초에 많이 서식한다. 껍질은 오라칼에 가깝고 매우 두껍고 탄탄하며, 표면은 흑갈색으로 광택이 나며, 크기는 12~17cm내외로 진주담치에 비해 두배 이상 큰 것이 특징이다.

참담치가 주는 좋은 재질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업항김밥이 기름 들어 있어서 겨울철에 즐겨 먹는 기호 식품으로 삼아서 말린 것을 담채(淡菜)라 한다.

참담치에는 타우린과 핵산 등이 풍부해 간의 독소를 제거하여 피로 해소는 물론, 숙취 해소를 돕고 비타민 B12, B2, C, E, 엽산 등 각종 비타민이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노화 방지, 피부 미용에 매우 좋다.

Google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이 광고 그만 보기
이 광고가 표시된 이유 보기

개봉여

CHEVROLET

쉐보레 전국민 시승 이벤트
FUN DRIVE CHEVY
시승하면 무제한 선물 증정

118 원



피라시에 멍든 정유미 '과하과워'

폭죽 인공달, 연과 같보다 8배 정도 작

대구부주 호텔사고, 60대 부주 경찰발령

조경석 공적입찰, 부리가 떨어져 상달해

서울광화 버스사고, 갑자기 전도된 원인

많이 본 뉴스

1. 이적될 신형김종필 장관, 유지할 '호한 현근소'...김부소
2. 강준여, 김정은 회담...미치고 험나 보여
3. 김서우 PC방 살인 구유...불기가 불심로 피론?
4. 충북 부친형 민남 유해가 '논란'
5. 정유미, 일화 '일아식칼' 내세워...김민환 칼